

### 공동체 소식

#### 사순시기

-재의수요일 미사: 26일 (수) 저녁 7시30분 (금육,한끼 단식)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구역반모임을 통해 전달된 라이스보울(CRS Rice Bowl)을 하루 \$1씩 40일간 모으셔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5일)에 봉헌 바랍니다. Rice Bowl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 성지가지 회수

-23일(일)까지 가정 십자가상에 걸려 있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한 나뭇가지를 본당에 가져와 주십시오.

#### 중/동부 유럽 교회를 위한 2차헌금(CCEE)

-23일(일) Aid to the Church in Central & Eastern Europe(CCEE). 중/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5년이 넘게 지났지만, 중/동부 유럽의 교회는 공산주의 체제 이후 재건을 위한 노력을 힘들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건물들이 국가에 압수당하거나 파괴되어, 신앙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사목자를 찾기 힘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교회를 재건하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사목과 교육을 증진시키며,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자세한 내용은 성당입구 포스터와 프린트물 참조 바랍니다.

#### 복사단 모임

-23일(일) 미사 후 나자렛관

#### 구역/반모임

구역/반장 모임 23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신심미사 안내

-사순/부활시기는 신심미사가 없습니다 (미사총지침 373-376항)

#### 2020 신앙여정 점검표

-2020 신앙여정 점검표를 드립니다. **개인별로 1년동안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생활, 기도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체크하여 보다 개선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교구대회를 통해 준비된 본당 계획으로 **신앙여정 점검표 작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봉사활동 참여자 모집

매월 둘째 토요일에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일시: 3월 14일(토) 오전 10시~12시

-장소: 135th TurnStyles Thrift Store

-3월 8일까지 봉사부장에게 신청

#### 교무금 계좌이체

-교무금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재무부장(차장)통해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부 회의

-3월 8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전례 상식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 서는 기다리십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46	211	174	44
차 주	115	210	166	118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시연 엘리사벳	박태주 로마노	김명희 리드비나
차 주	최은미 아녜스	차호섭 요셉	조지연 마리아

#### 미사 복사

	시종복사 1	시종복사 2
금 주	정예찬 미카엘 고평원 프란치스코	김가온 토마스 차한나 가브리엘라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강윤후 그레고리오 강미정 클라우디아

#### 헌금 봉사자

금 주	김태중 예레미아, 강승호 아오스딩
차 주	이우영 가브리엘, 김동술 요한

#### 애찬 봉사자

금 주	김화년 요안나, 안현숙 크리스티나, 김희진 에메렌시아
차 주	김말자 세실리아, 박계숙 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박영숙 비리짓다, 김수연 올리안나

####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대교구 한인성당

##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 오늘의 전례

예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거룩함과 완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룩함과 완전함은 외적인 경건함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 나아가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데 과연 얼마나 충실하였는지 성찰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 그림 묵상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1-42)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하느님께서서는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레위기, 19,1-2. 17-18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화 답 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 ◎

제 2 독 서 : 코린토1, 3,16-23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

복 음 : 마태오 5,38-48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 생명의 말씀

##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 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예비신자 입교 동기 가운데 1위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은 핸드폰 배터 리를 충전하는 것과 다릅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충전하듯 우 격다짐으로 내 안에 이것저것 채워 넣는다면 이웃과 갈등을 빚습니다.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쌓여 냉담의 길로 접어들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 그것은 ‘사랑의 배터리’를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설명하는 레위기입니다. 연중 제7주일(가해) 제1 독서에 따르면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레위 19,2)라는 내용이 이웃 사랑의 계명 (레위 19,17-18)과 연결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에게 앙 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지 말라는 계명의 근거는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듯 그분 백성도 거룩함의 길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한편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파벌 형성으로 분열된 교회공동체를 사도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 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 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코린 3,21-23) 코린토

1서 3장 16절-17절에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방향과 연결됩니 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의 길로 초대받았기에 이제는 분열 속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서로 사 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기를 바라는 바오로의 어머니 같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 의 초대를 듣게 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 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 그러므로 하늘의 너 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야 한다.”(마태 5,47-48) 성경 전통에 따르면 ‘거룩함’과 ‘완전 함’은 일맥상통합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듯 하 느님의 자녀들 또한 그러해야 하는데, 그 결과 하느님 사랑은 이웃 사랑, 원수 사랑과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습니 다.

이처럼 이번 주일 성경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의 이 중 계명입니다. 돈, 명예, 권력, 자녀의 성공, 정치적 신념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이웃과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배터리’를 통해 마음의 평화 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여러분 각자의 ‘사랑의 배터리’는 얼마나 충전되어 있습 니까?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하느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초대해 카리 타스의 의미를 제시한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말씀 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웃 사랑’이라는 형태로 응답해야 한다. 성경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역설한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카리타스는 좁은 의미로 하느님을 향 한 사랑의 덕행, 바로 애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곤 한다. 그 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기도 중 ‘애덕송’을 바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 고 애덕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 미에서 카리타스에 어원을 둔 영어의 Charity도 자선이라는 뜻을 지니게 된 것이다.

사랑, 즉 카리타스를 거부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와 이웃의 중재를 통해 하느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사랑을 받아들이 지 않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된다. 우리는 전례와 기도, 묵상으 로써, 또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사랑 에 응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

# 생활 속 영성 이야기

## 하느님께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짝, 나의 배우자  
나는 수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이렇게 까칠한 사람을 골랐을까? 스스로를 탓하곤 했었다  
그러나 우리 부부의 인연이 하느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존재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러웠다  
나에게 딱 맞는 짝을 맺어 주심을 깨닫고 나니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지난 주말 경기 양평 용문산에 가족들과 짧은 1박2일 여행 을 다녀왔다. 아이들을 집에 내려주고 부부 모임에 가려면 빠듯한 시간이었는데 진출구를 깜빡 지나쳤고, 다시 길을 찾아 가다 한 번 더 길을 놓쳐 무려 20km를 돌아와야 했을 때 한순 간 차 안에 정적이 흘렀다.

“아니, 한두 번 다니던 길도 아닌데 거길 왜 지나치고 그래? 안 그래도 바쁜데 이렇게 30분이나 늦어지면 어떻게 해?”하고 다그쳤다면, 남편 예로니모는 “당신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거는 바람에 그렇게 됐잖아? 수다도 때를 보가며 떨어야지?” 하고 받아줬을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 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비난이 이 순간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차 안의 분위기를 급냉각시켜 함께 타고 있던 아이들까지 불편하게 했을 것이고, 부부모임에 가서도 냉랭했을 것이다.

“용문산만 볼 게 아니라 관악산까지 보려고 여기까지 왔나 봐. 야, 관악산 멋지네. 안 그래?”, “그러게, 관악산도 볼 만 하 네?”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차 안의 공기가 갑자기 쉼렁 해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나서는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남편 예로니모가 다시 사랑스러워졌다.

부부 싸움은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탓하는 말을 내뱉고 그것이 배우 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입을 다물 어버린 채 냉전의 시간으로 넘어가곤 한다. 한순간 내 감정을 쏟아내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것이 싸울 일인지 싸울 필요도 없는 일인지 판단할 수 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싸움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부부 싸움의 지혜 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부도 전에는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했 다. 그럴 때마다 “나는 수많은 남자 중에 하필 왜 이렇게 까칠 한 사람을 골랐을까?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었나 봐” 하 며 스스로를 탓하곤 했다. 그런 생각을 바꿔준 게 ME주말에 서 들었던 ‘하느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좋게, 사랑스럽 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였다. 하느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지어주셨다면 나의 배우자인 예로니모도 나와 똑같이 귀하게, 사랑스럽게 만드셨고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분명 하 느님의 계획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예로니모가 전과 다르게 보였다. 내가 예 로니모를 남편으로 택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로니모가 나에 게 잘할 땐 사랑스럽지만, 못마땅한 점이 있을 때는 예로니모 도 미웠고 그를 선택한 나 자신도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니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러워졌다. 그렇게 귀한 사람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속상하게 했었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화나게 하는 일은 하느님을 슬 프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한 뒤로 더 이상 배우자의 작은 실수 때문에 화내지 않게 되었다.



전에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름 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선택해 짝을 지어주셨음 을 깨닫고 나니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었다. 우리 부부의 기도는 우리 두 사람을 통해 하느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며 약속 이다. 그 계획 안에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도 있고, 교회나 사회에서 하는 일도 있으며, 우리 부부가 함께 하고 있는 ME 운동도 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주셨음에 늘 감사드린다.

고유경 헬레나 | ME 한국협의회 총무 분과 대표